

“합평 마산리 고분 백제 무령왕릉급”

동신대 유적조사단, 지방수장층 무덤 발굴

합평에서 백제 무령왕릉보다 더 큰 규모의 지방수장(首長)층 무덤이 발굴됐다.

동신대 유적조사단(단장 이정호 교수)은 “합평군의 지원으로 지난 3월부터 합평군 학교교 마산리 산 16-2번지 일대 마산리 고분군(전남 기념물 제122호) 가운데 1호분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해 6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급 삼국시대 고분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무덤 주인공을 안치한 봉분 내부 시설인 석실(石室)이 장방형이며 그 규모는 길이 523cm, 너비 250cm, 높이 290cm로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고분 중 최대 규모”라며 “백제지역 고분 중에서도 초대형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유적조사단은 이 고분에서 모두 13기의 고분을 확인했으며, 이번이 가장 규모가 큰 제1호분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미 도굴돼 수장급임을 드러내는 위세품(威勢品)은 없었다.

유적조사단에 따르면 이 고분의 봉분 앞쪽은 네모이고 뒤쪽은 둥근 전방후원형(前方後圓形), 또는 두개 무덤이 붙은 장고형 무덤으로 분류된다. 전방후원형 고분은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총 13기가 보고됐으며, 고

대 일본의 무덤 양식과 비슷해 축조 세력이 누구인지 한일고대사 논쟁 소재가 되고 있다.

석실 구조는 입구에 문이 있고 그 안쪽에 석실을 마련한 횡형식 형태로, 석실 내부에서 백제 토기 조각과 함께 결면에 유약을 칠한 시유도기의 일종인 전문도기(錢文陶器·동전무늬 장식 도기)가 출토됐다.

유적조사단은 “시유도기는 서울 풍납토성 등 백제 중심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중국계 향아리로, 특정 계층에서만 사용한 기종이기 때문에 당시의 백제 중앙세력과 지방세력의 정치적 관계를 밝혀줄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도기는 지난 2008년 국립광주박물관이 해남 용두리 고분을 발굴하면서 작은 파편을 발견한 것이 호남 지역 최초였다. 마산리 고분에서는 일정한 복원이 가능한 전문도기 파편들이 무더기 발견됐다.

이정호 단장은 “마산리 고분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방후원형 고분과 원형분 13기가 집단으로 조성돼 있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각 고분의 상관관계를 밝혀낸다면 한일고대사 연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 규명해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1면 '光銀 분리매각'서 계속

문제는 지역 경제계가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강력하게 원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열약하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렵지만 설명 준비한다고 해도 금산분리법에 따라 은행 인수 때 산입자본이 1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광주상공인들의 연합을 15% 한도 규정에 따른 동일인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광주은행 인수 전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리 매각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상회와 지역 경제계·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와 각 기관에 수차례 전달하

고 우선협상권 부여를 요구해 왔다.

광주은행 노조는 “그동안 지방은행 설립 취지와 특색을 고려해 지역자본에 우선협상권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부가 시장논리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지역민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지역환원을 수용하도록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의 광주은행 분리 매각과 관련 “발표안에 지역환원을 바라는 지역정서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특정 시종은행에 의한 인수를 염두에 둔 매각 방안이 아닌지의 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도음식은 아주 특별한 맛... 세계에 알리겠다”

광주세계한상대회장 흥명기 美 듀라코트 회장

“한상 동기부여위해 대통령 참석해야”

“광주를 말하면 가장 먼저 음식이 떠오르잖아?.. 특별한 이 고장의 음식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이 한상(韓商)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전라도 음식의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오는 10월29일부터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를 앞두고 흥명기(80) 대회장(미국 듀라코트 회장)이 26일 대회 사전준비를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흥 회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조선대학교 강의를 위해 광주를 수차례 방문했는데, 만찬을 하면서 전국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을 느꼈다”며 “마이를 짝이는 비빔밥을 먹고

탄성을 지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전라도의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한상대회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상대회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 열렸지만 광주가 개최 장소로 선정된 만큼, 지역 특색 맞추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광주시민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상들을 친절과 격려로 맞아주는 것이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세계 50여 개국 한상들의 힘을 한 데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수출건을 앞두고 상대 나라를 직접 찾아가듯 우리 대통령도 ‘슈퍼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한상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해 한상



들의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차례 한상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대통령이 한상대회를 찾은 것은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타국에서 애국·애족심으로 똘똘 뭉쳐 사업을 일으킨 한상에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격려를 넘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흥 회장은 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 1985년 51세의 나이로 내구성 강화도료를 만드는 ‘듀라코트’사를 설립했다. 듀라코트는 현재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 연매출 2억 달러를 올리는 세계 ‘빅5’ 특수케임트기업이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는 인재 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2001년 1000만 달러를 출연해 ‘밝은 미래 재단’을 설립, 교육 및 장학 사업에 나선 것을 비롯해 동료들의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조선대 강연을 계기로 조선대학교 4명을 듀라코트 해외인턴십에 참가시키기도 했다. 흥 회장은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및 공로로 지난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지난해에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종강”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종강식이 지난 25일 광주시 치평동 센트럴호텔 2층 한일관에서 광주일보 관계자와 원우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종강식에서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이 강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준 원우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정인태 원우회장은 강의에 대한 소회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원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식행사에 이어 원우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2부 행사를 끝으로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학기 일정이 성료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안정화 될 때까지 정부 주도 운영해야”

지역정책개발연구원 포럼서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 주장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6일 원 중앙회(회장 나일환) 주최로 이날 광주시 4·19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수도 광주발전과 위상 정립’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에서)문화전당 운영을 정부주도로 하되 차후 민간단체

대중성·향유성·경제성을 바탕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장은 “5·18 광주항쟁의 인권·평화·사랑, 공동체 정신을 광주시민들의 삶에서 부활, 승화시켜 사회통합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재현 고구려 대학교수는 “아시아 문화를 끌어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행정학과(공공행정전공, 정치행정전공)
- 모집인원: 00명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전형방법: 면접고사
- 원서접수: 2013. 6.17(월) ~ 7.2(화)
- 문의: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공-26%호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분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온의 서비스란?

-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 010-8794-7609
www.thegaon.co.kr

자연산 참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 **웃**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웃 음식**: 토종 참웃닭 / 웃 청둥오리 / 웃 삼계탕
-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웃닭 (오분, 식사술 포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웃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웃닭 062)515-5757(웃칠웃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광주역, 우리은행, 해피부병원(구, 삼성병원), 신촌시장, 농협, 건강보험공단, 근린복지재단(중앙원 사무소), 함양웃닭, 원일빌딩, 롯데백화점, 수창 초교후문, 양동시장